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금리 인하는 지연되지만 경제는 긍정적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2개월만에 꺾춤...6.87%

[오일]

- WSJ: OPEC, 글로벌 경제 전망 상향 조정
- CNBC: 유가, 중동 해결 조짐 안 보이면서 계속 상승

[물류]

- Bloomberg: 홍해 선박 혼란이 글로벌 무역에 피해
- WSJ: 기업들, 재고와 저장 공간 줄이기 시작하다

[자동차]

- Bloomberg: 중국 자동차 부품 기업들, 멕시코로 몰려들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학위 요건 없앤 미 기업들, 실상과 다르다
- CNN Business: 외식 가격 부담 커졌다
- TechCrunch: Airbnb, AI 활용 높인다
- WSJ: 월마트, TV 제조업체 Vizio 인수 협상 진행 ... 광고 사업 확대 때문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Rate Cuts Might Be Delayed. That's No Reason to Panic.

금리 인하는 지연되지만 경제는 긍정적

- 어제 화요일 발표된 예상외의 강한 인플레이 보고서로 증시 지표는 떨어졌다.
- 다우존스는 어제 7백50포인트 내려왔다 1.4%낮은 525 포인트 감소했다.
- 금리에 민감한 소기업 중심 러셀 2000 지수는 4% 내려 앉았다. 10년물 국채 수익율은 지난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첫 금리 감소 시점이 5월 1일 대신에 6월 12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CME 그룹 FedWatch는 보고 있다.
- 시장은 인플레이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 상황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WSJ 기사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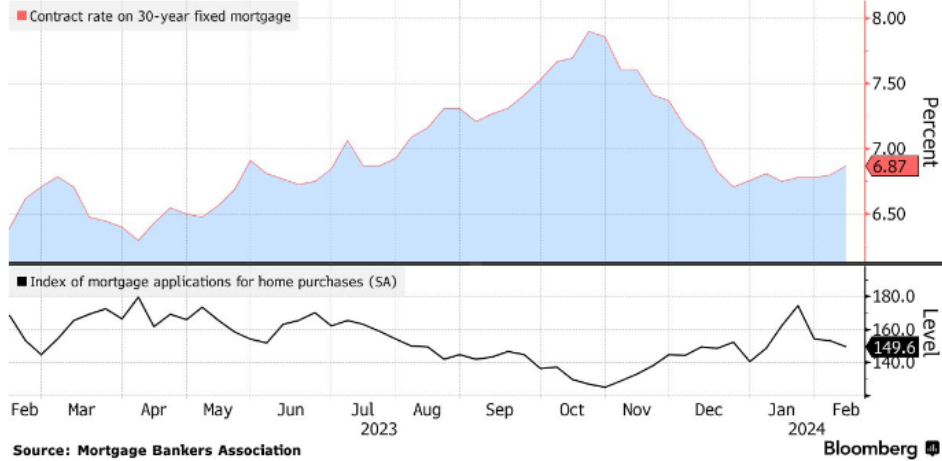
Bloomberg: US 30-Year Mortgage Rate Climbs to a Two-Month High of 6.87%

미 모기지율 2개월만에 꺾충...6.87%

- 지난주 미 모기지율이 두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어 주택 회복 모멘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월 9일로 끝나는 주의 30년 고정 모기지율이 6.97%로 뛰어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수요일 발표 모기지은행협회는 밝혔다.
- 가뜩이나 매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구매 희망자에게는 대출 비용 상승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US Mortgage Rates Are Creeping Higher

30-year fixed rate climbed to a two-month high, slowing purchase activity



Bloomberg 기사

[오일]

WSJ: OPEC Sticks to Oil-Demand Growth View, Lifts Economic Forecast

OPEC, 글로벌 경제 전망 상향 조정

- 이 기관은 글로벌 오일 수요 전망 예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 인플레이가 개선되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데 따른 것이다.
- 이 기관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올해 하루 오일 수요가 2백20만 배럴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 반면에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와 미국 성장 모멘텀으로 세계 GDP 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2.9%로 0.1%씩 상향조정됐다.

WSJ 기사

CNBC: Oil prices rise as Israel launches strikes in Lebanon**유가, 중동 해결 조짐 안 보이면서 계속 상승**

-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원유 선물가가 오늘 수요일 상승했다.
- 서부텍사스유 3월 계약가격은 53센트 상승해 배럴당 78.40달러를, 브렌트유 4월물 계약가격은 54센트 상승해 83.31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 서부텍사스유와 브렌트유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주에만 각각 5.5% 그리고 4.6% 상승한 바 있다.

CNBC 기사

[물류]**Bloomberg: Shipping Chaos Casts Pall Over Global Trade****홍해 선박 혼란이 글로벌 무역에 피해**

-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에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세계 무역 개선이 단기에 그칠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불안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 무디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아직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일부 중간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가운데 화물 비용은 두배나 늘어나고 배송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How the indicators compare

Latest data available for shipping, sentiment and export volume indicators, z-scores*

Below normal

4

Z-score less than -1

Normal ran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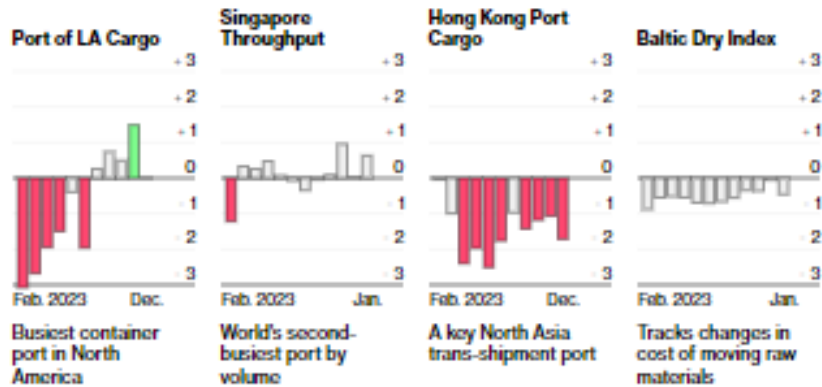
Z-score between -1 and +1

Above norm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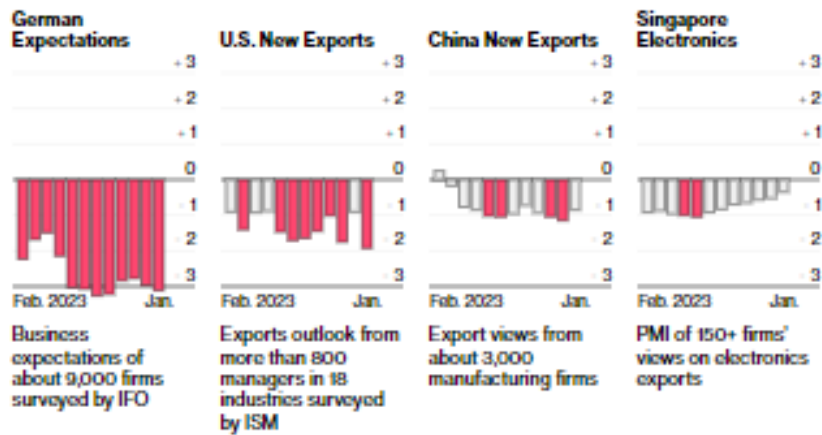
0

Z-score greater than +1

Shipping



Sentiment



Country Export Volu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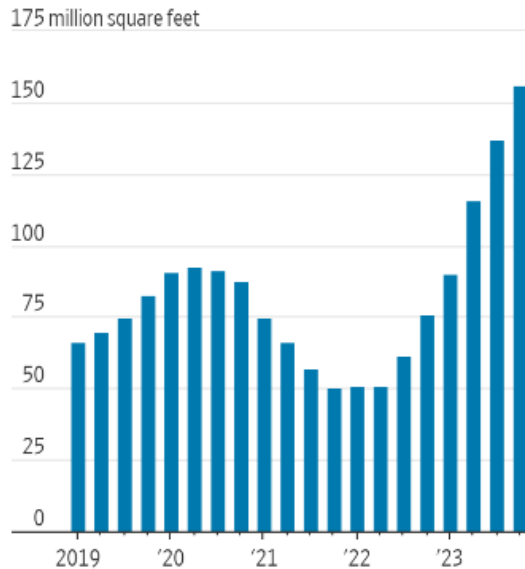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Warehousing Demand Is Starting to Shrink 기업들, 재고와 저장 공간 줄이기 시작하다

- 소비업체들과 공급업체들이 그동안은 재고를 줄여왔다면, 이제는 창고를 줄이고 있다.
- 이러한 흐름은 소매업체들이 대규모 재고 소진을 마무리하고, 팬데믹 이전의 정상적인 재고 및 소비패턴에 맞춰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JLL에 따르면, 2022년 평균 창고 임대료는 전년 대비 24% 가까이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둔화하여 2023년 임대료는 2022년 대비 12.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verage U.S. warehouse space available for sublease, quarterly



Source: Savills

WSJ 기사

[자동차]

Bloomberg: China's Auto-Parts Suppliers Are Flocking to Mexico 중국 자동차 부품 기업들, 멕시코로 몰려들다

- 중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 오늘 수요일,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가치는 작년에만 11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그 전년 대비 15% 상승한 것이다.

- 작년에 멕시코에 등록된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는 33곳이었으며, 이 중 18곳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했다.
- 이러한 배경에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멕시코에 구축하고자 중국 기업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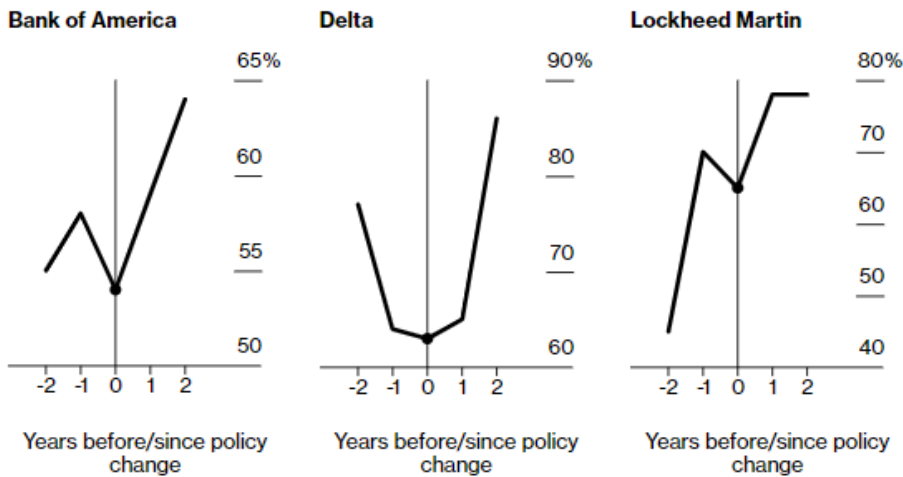
Bloomberg: Companies That Dropped Degree Requirements Are Mostly Hiring College Grads

학위 요건 없앤 미 기업들, 실상과 다르다

- 하버드 비즈니스와 버닝 글래스(Burning Glass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45%의 미국 대기업들이 많은 채용 공고에서 학사 학위가 필요 없다고 밝혔지만, 채용 방식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의 기업들은 처음엔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갔다.
-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채용 공고에는 다양한 선별 과정과 여러 평가가 포함 되어있으며, 채용 담당자는 채용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학위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비판적 사고 같은 역량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HBS 교수 Joseph Fuller는 채용은 상대적인 현상이라 말했다.

Three Companies That Hired More College Graduates

The share of new hires with Bachelor's degrees after removing degree requirements.



Source: Burning Glass Institute, Harvard Business School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Surging restaurant prices are making dining out a luxury

외식 가격 부담 커졌다

- 집에서 식사하는 비용은 점점 저렴해지고 있다.
-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 올랐고, 반면에 식당에서 소비되는 가격은 5.1% 올랐다.
- 특히 신선 야채의 가격이 올랐다.
- 해당 식품 카테고리의 가격은 지난달 2.4% 상승했다. 가장 눈에 띄는 상승 가격은 토마토. 12월에 비해 1월에 4.6% 상승했다.

CNN Business 기사

TechCrunch: Airbnb plans to use AI, including its GamePlanner acquisition, to create the 'ultimate concierge' Airbnb, AI 활용 높인다

- 이 회사는 지난 11월에 시리의 공동 창업자인 GamePlanner AI가 설립한 스텔스 AI 기업을 인수했다. 이 회사의 가치는 2억 달러.
- 이 회사는 AI의 '애플리케이션 계층(application layer)'을 가속화 하여 가장 혁신적인 AI 인터페이스중 하나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TechCrunch 기사

Bloomberg: Walmart in Talks to Buy TV Maker Vizio 월마트, TV 제조업체 Vizio 인수 협상 진행 ... 광고 사업 확대 때문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월마트가 스마트 TV 제조업체인 Vizio를 20억 달러 이상에 인수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 이러한 움직임은 이 소매 기업이 저가 TV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광고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 이는 주요 소매업체 간의 광고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소비자 데이터와 광고 플랫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Insider Intelligence에 따르면, 광고주들은 리테일 미디어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을 옮기고 있으며, 올해 미국 광고 수익은 작년보다 약 30% 증가한 5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채권시장, 예상웃돈 美물가에 금리인하 기대 수익률 모두 반납

블룸버그 "5·6월 기준금리 인하론 흔들...7월 전망도"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지난해 연말부터 올랐던 주요국 채권 가격도 상승분을 완전히 반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세계 채권지수가 올해 들어 3.5% 하락,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난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 전날이던 12월 12일 이후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고 보도했다.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국시간 작년 12월 11일 4.23%에서 12월 27일 3.79%까지 내려간 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14일 장중 4.33%를 찍은 데 이어 오후 4시 기준 4.289%에서 거래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